

2026.02.12.(목) 증권사리포트 "한국금융 지주, 목표주가 40% 상향"

◆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내용은 증권사 홈페이지(링크삽입)에서 확인해주세요.

OCI홀딩스

드디어 흑자전환, 그리고 기대되는 이벤트들

[출처] 미래에셋증권 이진호 애널리스트

성공적인 흑자전환과 비중국 폴리실리콘 규제 수혜 기대

미래에셋증권은 OCI홀딩스에 대해 4분기 가동률 회복을 통해 성공적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며 향후 대외 정책 수혜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진호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4분기 영업이익이 273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15% 상회하며 실적 회복 궤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폴리실리콘 부문의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향후 미국의 Section 232 규제 및 PFE 가이드라인 발표로 비중국 폴리실리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밸류에이션 산정 방식을 PER로 변경하고 투자 의견 매수 유지와 함께 목표주가를 180,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결산기 (12월)	2023	2024	2025F	2026F	2027F
매출액 (십억원)	2,650	3,577	3,397	4,314	4,706
영업이익 (십억원)	531	102	-58	503	646
영업이익률 (%)	20.0	2.9	-1.7	11.7	13.7
순이익 (십억원)	714	98	-84	355	482
EPS (원)	36,002	5,005	-4,463	19,043	26,235
ROE (%)	18.7	2.5	-2.2	9.0	11.2
P/E (배)	2.9	11.7	-	7.8	5.7
P/B (배)	0.6	0.3	0.6	0.7	0.6
배당수익률 (%)	3.1	3.7	1.9	1.5	1.5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OCI홀딩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성엔지니어링

오랜 투자의 결실을 거둘 때

[출처] 한국투자증권 채민숙 애널리스트

북미 고객사 확장과 차세대 태양광 장비 양산 가시화

한국투자증권은 주성엔지니어링에 대해 오랜 R&D 투자의 성과가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026년 하반기부터 북미 메모리 고객사향 ALD 장비 수주가 시작되며 기술적 우위를 증명할 것

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세계 최초로 페로브스카이트용 ALD 장비 양산 출하가 예정되어 있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2027년으로 갈수록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것임을 고려하여 투자이건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70,000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유한양행
전통의 강호가 돌아온다

[출처] iM증권 정재원 애널리스트

레이저티닙 로열티 본격화와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의 성공적 입증

iM증권은 유한양행에 대해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투자 성과를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의 가치를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정재원 iM증권 애널리스트는 에임드바이오 투자 관련 처분이익 450억 원을 인식하며 전략적 R&D의 결실을 맺었다고 분석했다. 주력 제품인 레이저티닙은 2026년부터 로열티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이비엘바이오 등과의 공동개발 파이프라인 성과도 순차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기술수출 의지를 반영한 공격적인 2026년 가이드스를 긍정적으로 판단하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50,000원을 유지했다.

FY	2024	2025E	2026E	2027E
매출액(십억원)	2,068	2,187	2,318	2,480
영업이익(십억원)	55	104	133	182
순이익(십억원)	71	182	221	214
EPS(원)	869	2,240	2,721	2,623
BPS(원)	25,808	27,572	29,816	31,962
PER(배)	137.6	48.7	40.1	41.6
PBR(배)	4.6	4.0	3.7	3.4
ROE(%)	3.4	8.4	9.5	8.5
배당수익률(%)	0.4	0.5	0.5	0.5
EV/EBITDA(배)	82.1	47.3	42.7	33.3

주: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한국금융지주

목표주가 40%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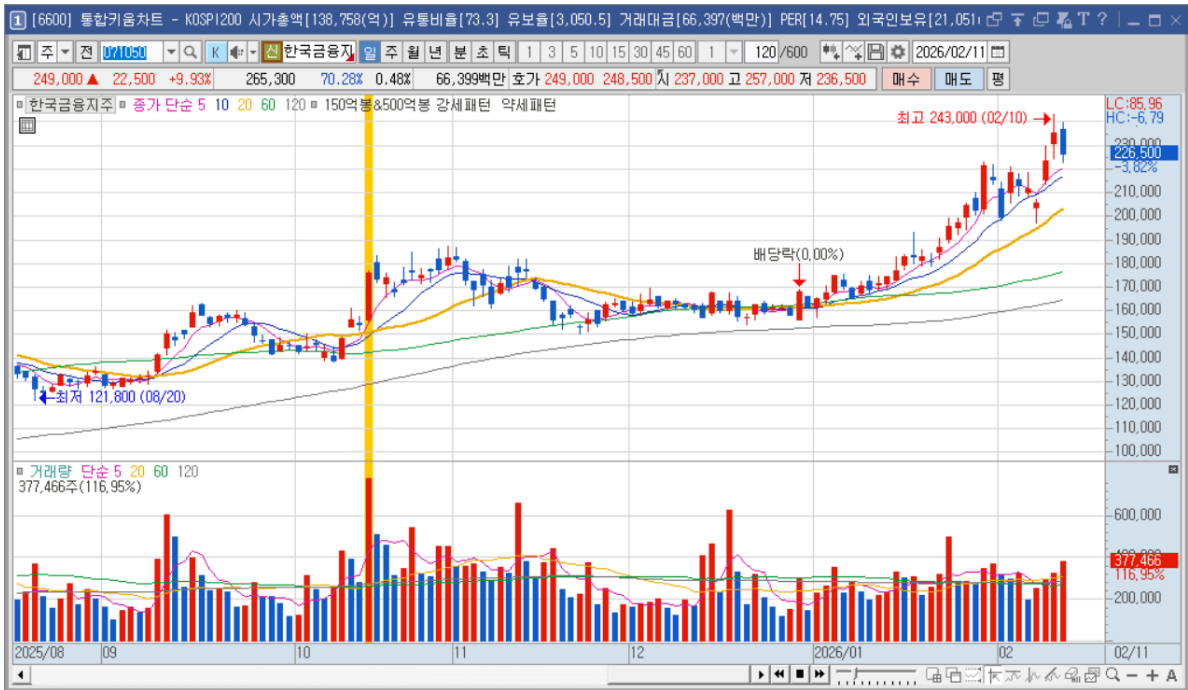
[출처] 신한투자증권 임희연 애널리스트

압도적인 자본 효율성과 복리 효과 기반의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신한투자증권은 한국금융지주에 대해 업계 최대 수준의 자본 규모와 높은 ROE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으며, 특히 국내외 증시 호조로 인한 위탁매매 수수료의 견조한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본의 복리 효과가 가속화되는 구간에서 경쟁사 대비 높은 멀티플 적용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익 추정치 상향과 우수한 주주환원 정책을 반영하여 섹터 내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350,000원으로 40% 상향 조정했다.

	12월 결산 순영업수익 (십억원)	수수료손익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PER (배)	ROE (%)	PBR (배)	DY (%)
2023	1,988.9	1,039.8	820.4	707.0	4.8	8.8	0.4	4.3
2024	2,635.2	1,224.9	1,199.7	1,039.7	3.8	11.5	0.4	5.6
2025P	4,008.6	1,562.2	2,345.3	2,020.4	4.5	18.7	0.8	5.4
2026F	4,874.3	1,970.3	2,968.7	2,339.5	5.4	18.4	0.9	4.4
2027F	5,134.6	2,117.8	3,141.9	2,510.9	5.0	17.5	0.8	4.9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에스엠

기대했던 '반전'으로 최대 이익 기록

[출처] 신한투자증권 지인해 애널리스트

고마진 IP 라이선싱 매출 호조를 통한 역대 최고 분기 실적 달성

신한투자증권은 에스엠에 대해 앨범 판매량 감소 우려를 씻어내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이익의 질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에스파와 배틀그라운드의 협업 등 고마진 IP 라이선싱 수익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SM NEXT 3.0' 전략에 따른 글로벌 확장 및 AI 활용으로 비용 절감

과 서비스 고도화가 기대되며, 2026년까지 촘촘한 아티스트 활동이 예정되어 있어 실적 모멘텀이 풍부하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수준임을 고려하여 투자의견 매수 유지와 목표주가 160,000원으로 상향을 제시했다.

12월 결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PER (배)	ROE (%)	PBR (배)	EV/EBITDA (배)	DY (%)
2023	961.1	113.5	87.3	25.1	12.3	3.0	11.8	1.3
2024	989.7	87.3	18.3	97.2	2.6	2.7	10.4	0.5
2025P	1,174.9	183.1	344.2	9.0	41.6	3.1	10.5	1.2
2026F	1,316.6	222.8	144.8	19.0	13.8	2.5	7.7	1.3
2027F	1,435.1	252.1	167.1	16.5	14.3	2.2	6.8	1.5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